

2017년 12월 18일, 애월읍 하귀2리 김경출 씨 댁, 강경민 조사.
김경출(남, 1947년생, 애월읍 하귀2리)

- 줄거리: 고성리 사람이 밤에 혼자 오다가 저수지 쪽에서 헛게를 만난 후에 아파서 죽었다. 옛날엔 불빛을 쫓아가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, 돌을 두드리거나 돌 냄새를 나게 하면 도깨비가 도망갔다.

[조사자] 명당자리나, 힘센 장수이야기도 좋고, 도체비 이야기도 좋아.

[제보자] 도체비는 봐낫주게. 게난 저 고성 외할머니, 할아버지한티 들었주게. 일본 갔다 오다가 저 저수지 쪽에서 헛게 만난. 헛게가 영 허연.

[조사자] 어떤 모양입니다?

[제보자] 어떤 모양보다도 할망이 곤던 말이주게. 헛게 만나서 다리 알로 지나완, 집이 완 아팡 죽엇덴.

[조사자] 아, 헛게 빵 죽어불었덴.

[제보자] 옛날엔 배가 외도로 들어왓주게. 밤에 혼자만 오다가 헛게 만나서 죽엇덴. 도체비에 홀린 사람은 많아.

옛날엔 캄캄헐 때 불 베롱이. 사름 앞이 혼 삼십메타 앞이 불이 베롱이 헨. 그 불 촛양 가당 보민 기정에도 털어정 죽엇덴. 말이 나낫주게. 옛날엔 돌 7정 뎅 기멍 독, 독, 독 두드리민 돌 냄새 나민 도망간덴 그런거 잇주게.

- 핵심어: 헛게(귀신), 저수지, 외도, 도체비(도깨비), 돌 냄새, 고성, 배, 밤, 불